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7인의 주요정책

월주스님 (기호 1번)



월주스님의 정책은 종단의 안정과 원칙에 입각한 중단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4년간 펼쳐 온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토대로 하는 보살도의 실천도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안정·원칙 입각 개혁지속

월주스님은 우선 중단 운영의 틀을 다스리기로 제시했다. 중헌종법의 효율적이고 전향적인 개정을 위한 중헌종법 개정 연구위원회를 총무원과 중앙총회 합동으로 구성하는 등 종도들과 함께 하는 중단 운영의 다짐이 첫번째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 신뢰받는 중대기관사 구현, 불법의 호지 신앙, 21세기 한국사회의 선도하는 활동적 불교상 구현 등이 총괄적인 틀.

월주스님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도 다섯가지 대목으로 밝혔다. 수행과 교육분야에서는 선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승가 기본교육기관의 핵심적 육성, 승가복지 종합 대책추진등을 약속했다.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는 교구본사 주지회의의 정례화를 먼저 꼽았으며 각 종단 주요기관 대표와 교구본사 주지, 제방 중진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도 약속했다.

약력 35년 생. 54년 금도 스님을 은사로 득도. 현 조계종 총무원장.

지선스님 (기호 2번)



지선스님은 종단의 대화합과 공의제도 실현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스님은 중앙총무자문회의를 구성해 원용적인 중단운영을 실현한다는 약속을 앞세웠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총무자문회의를 구성하며 중단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공의제 실현 중단 대화합

이같은 기조 속에서 지선스님은 중앙총무기관의 구조조정과 업무효율화를 통해 인력과 예산낭비의 차단, 중헌종법에 입각한 인사정책 실현 등을 강조했다.

지선스님이 내 놓은 정책의 세부 지침은 7개부분 70여가지. 7개 부분은 △대화합의 중단운영 및 중무역신 △선불교 중흥 및 교육제도의 내실화, 역경사업의 지원 구조확대 △선불교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 사회 국제사업의 통한 대중불교 실현 △생산적 자산 관리 및 숙원불사의 원만 성취 △새로운 국가정책 및 타종교 정책수립과 시행 △동일시대의 대비 등이다.

지선스님이 내 놓은 정책의 세부 지침은 7개부분 70여가지. 7개 부분은 △대화합의 중단운영 및 중무역신 △선불교 중흥 및 교육제도의 내실화, 역경사업의 지원 구조확대 △선불교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 사회 국제사업의 통한 대중불교 실현 △생산적 자산 관리 및 숙원불사의 원만 성취 △새로운 국가정책 및 타종교 정책수립과 시행 △동일시대의 대비 등이다.

지선스님이 내 놓은 정책의 세부 지침은 7개부분 70여가지. 7개 부분은 △대화합의 중단운영 및 중무역신 △선불교 중흥 및 교육제도의 내실화, 역경사업의 지원 구조확대 △선불교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 사회 국제사업의 통한 대중불교 실현 △생산적 자산 관리 및 숙원불사의 원만 성취 △새로운 국가정책 및 타종교 정책수립과 시행 △동일시대의 대비 등이다.

약력 46년 생. 61년 석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현 백암사 주지.

월탄스님 (기호 3번)



월탄스님의 정책은 수행가공을 바로 세우고 교육제도의 혁신적 개혁을 통해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데 중심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월탄스님은 8대총회와 6대지표를 밝혔다. 8대정책의 첫번째는 불교의 시대적 역할 확대와 사회의 구제와 계도의 선도. 각종 구제사업과 국민복합운동의 실질적 성과 창출. 도덕성회복운동 추진. 지역사회 발전 선도 등이 구체적 실천 내용이다.

교육제도 등 혁신적 개혁

월탄스님의 정책은 수행가공을 바로 세우고 교육제도의 혁신적 개혁을 통해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데 중심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월탄스님은 8대총회와 6대지표를 밝혔다. 8대정책의 첫번째는 불교의 시대적 역할 확대와 사회의 구제와 계도의 선도. 각종 구제사업과 국민복합운동의 실질적 성과 창출. 도덕성회복운동 추진. 지역사회 발전 선도 등이 구체적 실천 내용이다.

월탄스님의 정책은 수행가공을 바로 세우고 교육제도의 혁신적 개혁을 통해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데 중심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월탄스님은 8대총회와 6대지표를 밝혔다. 8대정책의 첫번째는 불교의 시대적 역할 확대와 사회의 구제와 계도의 선도. 각종 구제사업과 국민복합운동의 실질적 성과 창출. 도덕성회복운동 추진. 지역사회 발전 선도 등이 구체적 실천 내용이다.

월탄스님의 정책은 수행가공을 바로 세우고 교육제도의 혁신적 개혁을 통해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데 중심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월탄스님은 8대총회와 6대지표를 밝혔다. 8대정책의 첫번째는 불교의 시대적 역할 확대와 사회의 구제와 계도의 선도. 각종 구제사업과 국민복합운동의 실질적 성과 창출. 도덕성회복운동 추진. 지역사회 발전 선도 등이 구체적 실천 내용이다.

월탄스님의 정책은 수행가공을 바로 세우고 교육제도의 혁신적 개혁을 통해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데 중심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월탄스님은 8대총회와 6대지표를 밝혔다. 8대정책의 첫번째는 불교의 시대적 역할 확대와 사회의 구제와 계도의 선도. 각종 구제사업과 국민복합운동의 실질적 성과 창출. 도덕성회복운동 추진. 지역사회 발전 선도 등이 구체적 실천 내용이다.

약력 37년 생. 55년 금도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설조스님 (기호 4번)



설조스님은 정책의 근간을 '나라를 구하는 교단을 만들겠다'는데 두고 있다. 구체적 정책안은 관리, 교육(도제양성), 포교, 역경 등 네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다. 스님은 종교관리 분야에서 중앙통제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구본사 중심으로 통제와 보완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구본사 중심 통제 시스템 속에서 인사와 재정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찾아 내겠다는 약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지방 승가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해 개선 보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사 중심 인사·재정 운용

설조스님은 포교의 극대화 불교 위상강화, 교단 안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천착 포교역량 확대에 중점을 모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스님은 각 사찰 주지스님과 대우스님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 가람수호와 사회적 역할 강화를 꾀했다는 의지도 보였다.

설조스님은 포교의 극대화 불교 위상강화, 교단 안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천착 포교역량 확대에 중점을 모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스님은 각 사찰 주지스님과 대우스님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 가람수호와 사회적 역할 강화를 꾀했다는 의지도 보였다.

설조스님은 포교의 극대화 불교 위상강화, 교단 안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천착 포교역량 확대에 중점을 모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스님은 각 사찰 주지스님과 대우스님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 가람수호와 사회적 역할 강화를 꾀했다는 의지도 보였다.

설조스님은 포교의 극대화 불교 위상강화, 교단 안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천착 포교역량 확대에 중점을 모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스님은 각 사찰 주지스님과 대우스님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 가람수호와 사회적 역할 강화를 꾀했다는 의지도 보였다.

약력 31년 생. 48년 금도 스님을 은사로 득도. 현 경실련 공동대표.

법열스님 (기호 5번)



위계질서 확립 승가화합

법열스님의 정책은 화합승가 가공을 세우고 21세기를 향한 합한 중단 구현을 내걸고 있다. 출가사문의 화합공토 조성, 문중 계층간 위계질서 확립, 선별적 사면 단행, 중정 중심제를 통한 수행가공 계승, 민족문화회 이끄는 불교 위상의 강화, 교구 자율권과 공정한 인사 행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재가 신도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조직의 극대화, 불교종합화관 건립, 불교 방송과 종합병원 설립의 지원등도 내놓았다. 약력: 39년 생. 57년 경보스님을 은사로 득도. 대전 미륵사 주지.

대우스님 (기호 6번)



서원-화합으로 종단정화

대우스님은 정책을 통해 '서원과 화합으로 종단을 정화하자'고 강조했다. 스님의 정책은 교육과 재정 인사문제와 종단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된 내용. 교육부에서 스님은 상설 종도수행 교육장의 개설을 통해 수행자 교육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 강조했다. 재정부분에서는 삼보정재의 공개 운영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기능 강화, 교육 포교 승려노후 복지에 비중있는 재정 편성을 들고 있다. 약력: 46년 생. 59년 운기스님을 은사로 득도. 현 법사불교신문 주필.

종후스님 (기호 7번)



선교양종 수행공토 조성

종후스님의 정책 기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양심적으로 일하는 공토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님은 선교양종의 수행공토 조성과 불교계의 사회복지 활동활성화, 육화합 정신에 입각한 선별적 사면 복관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약력: 42년 생. 67년 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현 노적사 주지.

3선 저지 실현 결의문

●... 중정예하 교시봉행 정진대법회가 4일 오후 2시 5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중정예하 교시 봉행위원회(공동위원장 일타·성수)가 주최한 이 법회에는 원로의원 지선스님과 월탄 설조 대우 법열 스님등 후보자와 지선스님 등이 참석했다. 당초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정진 법회로 기획됐다가 행사명을 바꿔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참가자들은 중정교시를 받들고 월주스님의 3선 저지를 실현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7일까지 월주스님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9일 승려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6일 월주스님의 교시에 따라 9일로 예정된 승려대회는 11일 열릴 계획이다. 법회후에는 22명의 스님들이 조계사 덕암전에서 월주스님 사퇴때까지를 기한으로 단식에 들어갔다.

중정교시 봉행위 구성

●... 4일 열린 중정예하 교시봉행 정진대법회를 계기로 중정예하 교시봉행위원회가 구성됐다. 원로의원 지선스님을 중정으로 일타, 성수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봉행위원회는 중정 월주스님의 두번째 교시가 6일 발표된데 따라 11일 전국승려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월주

조계종 선거

총무원장 3선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는 당면한 3선저지를 위해 중정교시 봉행위원회와 행보를 같이할 계획이다.

본사 주지모임 중정교시 해석

●...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회장 법장)은 4일 유성에서 모임을 갖고 "중정스님의 교시는 중헌종법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고 화합하라는 뜻으로 사료되는 바 그 뜻을 받아들인다"고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10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참가했다.

"중헌종법따른 선거돼야"

●... 총무원장 후보 지선스님(백암사 주지)은 5일 수송동 선거대책본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 범불교도 연대회의'의 결의를 선언하고 중단분규를 획책하는 일부후보자와 탈빈자들은 참회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9일 승려대회는 즉각 취소돼야 하며, 중앙총회 원구성과 총무원장 선거는 중헌종법에 근거해 반드시 치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승가회 연대회의의 탈퇴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하스님은 5일 '월주 총무원장 3선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에서 실천불교승가회 탈퇴한다고 밝혔다. "중정예하 교시봉행 정진법회'가 각 단체인 충분한 논의없이 봉행됐을 뿐만 아니라 해종행위자들이 법회에 동참해 '월주스님 3선 반대운동'에 대한 도덕성과 순수성을 잃었다는 것. 연대회의는 5일 논의를 통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탈퇴는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통도사 간담회의 원로스님들

●... 6일 통도사에서 열린 원로간담회에는 모두 8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원로의원스님은 법암, 비룡, 일타, 성수, 도경, 정영, 종산, 청하스님등. 원로의원 스님 가운데 원담, 보성, 지종, 석주스님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4일 열린 중정교시봉행정진대법회에서 발표된 중정교시 봉행에 대한 동의서를 근간으로 6일 교시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한다는게 월하스님의 입장. 원로의원은 아니지만 화산스님과 도성스님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법장(수덕사) 법타(은혜사) 성덕(동화사)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스님도 참석했다.

월주스님 진영 입장발표

●... 송월주총무원장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일 월하스님의 두번째 교시가 발표된 직후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본부는 "중정교시에 대한 입장" 제하의 문건을 통해 "중정의 이름으로 한 후보자, 한 정파의 입장에서 교시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중정스님의 권위에 의지해 정상적인 선거국면을 혼란 속에 빠뜨리려는 불순세력의 사주로 본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11일의 승려대회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헌종법 체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했으며 이번 선거는 중헌종법대로 치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초청 합동 정책토론회

불교언론인회 불교기자협회 총무원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선거결과 승복 안할 수도 있다"

월주스님 토론 불참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초청 합동 정책토론회가 11일 5일 오후 한 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선, 월탄, 설조, 대우스님이 나와 정책을 밝혔다. 박광서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이은중 중앙일보 전문위원과 송위지 외국어대 교수, 김성근 주간불교신문사 주필이

패널로 참가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여부 지선: 중헌종법을 위반하고 3선을 강행한 후보의 당선은 승복할 수 없다. 월탄: 부적격자가 중정교시를 무시하고 출마할 경우 재고해 볼 것이다. 설조: 이번 선거 결과 부적격자의 당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우: 결과에 대해서는 대중의 중지가 모아진대로 따르겠다. ◆징계스님들에 대한 사면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대우: 중정스님도 교시를 통해 여러 번 대사면 당부했다. 설조: 중단분규의 과정에서 징계된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한다. 대폭적인 검토를 통한 화합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월탄: 중헌, 원로와 중정스님의 뜻을 물어 대사면을 해야 한다. 지선: 중헌종법에 의한 구제의 길을 찾는게 바람직하다. 반드시 대사면의 자리는 마련되어야 한다. 일연태 기자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께

- 총무원장 3선을 반대합니다. -

증거는 원장스님

돌아오는 11월 12일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3선이다, 3선이 아니다,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조계종 사태는 한 치의 앞을 보지 못하고 견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수의 승려들이 총무원을 강제 점거하는 사태와 봉사 주지문제로 인하여 각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가 불자는 물론 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차마 승복을 입고는 창피해서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책임이 또한 누구한테 있다고 하겠습니까?

부모형제를 버리고 산문으로 출가한 수행자는 불법을 중생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오늘날 조계종 불교는 중생을 교화 포교하기는 커녕 신심있는 불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추태만 보여줌으로서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불타의 정신은 과연 어느곳으로 가야만 합니까?

불과 4년전 조계사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전세계 불교인들은 한국불교를 이렇게 평하였다 합니다.

다시는 회생될 수 없는 불교라고 말합니다. 이제 「또다시 제2의 조계사 사태가 발생된다면 우리 모두 자멸하게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계종 불교가 다시는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님의 상징으로서 진심으로 스님과 한국 불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드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것을 잘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효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에 한국 불교를 잘 보셔야 합니다. 4년전, 전 총무원 집행부가 무너진것도 3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에 정치사를 보아도 명분없는 체제는 꼭 무너지고야 마는 진리적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생각 버리면 일체가 고요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어둡고 캄캄한 세상으로 만들려 하십니까. 욕심이 끝이 없으면 번뇌 또한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3선 불출마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며 한국불교 앞날을 위해 미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색어가고 있는 불교를 어떤 부위부터 칼로 오려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불교는 무엇이 하나가 잘된 것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시 해야할 승가의 위계질서가 무너진지 오래이며, 제도 또한 잘 정립되었다고 보십니까? 종교집단으로 본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수행자가 총무원 청사나 난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추태를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승가의 정신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스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시고 청정하신 그 본래의 마음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선 불출마를 선언하십시오.

1998. 11. 4.

상좌 박도오 드림